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기)

- 계룡시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계룡시(鷄龍市)는 2003년 9월 19일에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도시이다. 계룡시 지역은 백제의 황등야산군, 신라의 황산군, 고려와 조선의 연산현(연산군)에 속해 있던 곳으로, 조선후기 면리제가 실시될 때에는 주로 연산현(군) 두마면에 속했고, 1914년의 논산군 등장 이후에는 논산군(논산시) 두마면 지역에 해당한다.

계룡시 지역은 1989년 육·해·공군의 본부가 이 지역으로 옮겨오고 군인들이 거주하는 군인 아파트와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차례로 들어서게 되면서, ‘계룡 신도시’ 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 주도 아래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다. 우선 1989년 1월 1일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가 논산군 두마면 으로 편입되었고, 1990년 2월 19일 논산군 두마면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이 되면 당시의 논산군에서 분리하여 따로 시로 승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만큼 인구가 늘지도 않았고, 1995년 도농통합시 제도가 출범하면서 이때부터는 기존 군이나 시의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는 일이 없어졌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듬해인 1996년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자, 계룡출장소는 별개의 시로 승격되는 길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며 도 직할 계룡출장소인 만큼 인사, 예산 등의 행정 사항은 도 직할로 두면서도 주소상으로는 논산시이기 때문에,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로 뽑게 되자, 지역 주민들은 정작 두마면에 대한 권한이 없는 논산시장과 논산시의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특례시 설치를 약속하고,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승격 요건'에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며 도농복합시의 일부인 지역"이라는 사실상 계룡시만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 결국 2003년 별도의 시로 분리된 계룡시가 출범하였다. 이 때 시 승격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군인 인구다. 계룡시는 서류상 인구는 5만이 안 되지만, 3군 본부에 근무하는 많은 수의 군 장교들이 주민등록을 계룡시로 옮기지 않고 군 관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계룡시의 실 거주 인구는 사실상 5만이 넘는다는 논리였다.